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4-48호 | 2024년 12월 27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이한주 | idp.theminjoo.kr

인구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일자리 예산 삭감, 추경으로 편성하자

남 국 현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 요 약 》

■ 현황

- 2025년도 고용노동부 일자리예산은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함
-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35조 3,452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627억원이 증가(4.9%)

■ 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편성의 문제점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등 노동약자를 위한 일자리 예산을 증가한다고 하였지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등 장애인 고용 인프라 예산을 감소함
- 청년, 중장년 등 세대별 일자리사업의 예산을 감소하여 세대별 취업역량 강화 기능 감소
- 고용창출장려금 등 소득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감소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 증대
-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직업훈련 관련 예산의 감소로 인적자원 개발 감소
- 운영지원비, 사회적기업 지원 등 기타 일자리사업의 예산감소로 고용 인프라 감소 우려

■ 정책제언

- 삭감된 일자리 예산의 추경편성
- 장애인 고용인프라 예산 확대 방안 마련
-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세대별 일자리 예산 확대
- 고용창출장려금 등 소득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 확대
- 직업훈련 관련 일자리 사업의 예산확대로 구직자 및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 운영지원비, 사회적기업 지원 등 기타 일자리사업의 예산확대로 고용인프라 확대 및 고용촉진

▶ 키워드: 일자리예산, 소득지원, 직업훈련, 고용 인프라, 노동약자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현황

- 2025년도 고용노동부 일자리예산은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함
 -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35조 3,452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627억원이 증가(4.9%)
 - ('24년 본예산) 33조 6,825억원 → ('25년 최종) 35조 3,452억원
- 일자리 예산의 주요 증액분야는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청년 취업지원 등에 확대 편성됨
 -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예산으로 모성보호 육아지원과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의 확대
 - 육아휴직급여(1조 4,161억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845억원), 배우자출산휴가급여(158억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1,560억원) 증가
 - 노동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 대지급금, 체불청산 지원융자, 장애인 고용기금 등 증액
 - 노동약자 지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44억원), 일터개선 지원(21억원) 등 160억원 신설
 - 대지급금(546억원), 체불청산 지원융자(302억원), 장애인 고용기금(318억원) 등 사업예산 증가
 - 청년 전주기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고용 지원인프라,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청년취업 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의 확대
 - 청년고용 지원인프라 266억원 증가: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대학·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 청년 일자리창출지원 1,195억원 증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사업주 월 최대 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취업 진로 및 일경험지원 477억 증가: 청년 일경험 지원, 청년도전지원 및 직장적응 지원

2. 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편성의 문제점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등 노동약자를 위한 일자리 예산을 증가한다고 하였지만, 장애인 직업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 장애인 고용 인프라 예산을 감소함
 -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을 전년대비 540억원 확대하였으나, 장애인 사업운영비, 인식개선, 고용정보화,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 인프라 예산을 311억원 삭감하여 장애인 취업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가 어려워질 것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고용 인프라 예산과 동시에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률 증가 필요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은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향상해 취업기회를 확대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삭감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 감소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예산변화>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10,139,000	9,538,000
장애인 고용연구	3,844,000	3,518,000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5,764,000	5,064,000
장애인 고용정보화	5,053,000	4,153,000
장애인 취업지원	34,011,000	33,411,00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88,585,000	60,611,000
계	147,396,000	116,295,000

자료: 열린재정, 기획재정부

○ 청년, 중장년 등 세대별 일자리사업의 예산을 감소하여 세대별 취업역량 강화 기능 감소

- 청년과 중장년 인구감소,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고령인력 증가 등 다양한 노동시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세대별 취업역량 기능을 강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감소로 고용불안정 증대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15세~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나, 예산감소로 중소기업 인력 부족 심화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 400만원씩 공동으로 적립하여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실상 폐지수준에 들어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에 부정적 효과
 - 중장년층취업지원 40대 이상 재직자와 구직자와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감소로 중장년 취업지원 기능 약화

<세대별 일자리사업의 예산변화>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7,071,000	1,710,000
해외취업지원	57,540,000	47,116,000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일반)	239,461,000	29,368,000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1,668,000	11,481,000
중장년층취업지원	20,052,000	18,443,000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12,654,000	11,219,000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62,102,000	56,730,000
계	420,548,000	176,067,000

자료: 열린재정, 기획재정부

○ 고용창출장려금 등 소득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감소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 증대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감소로 근로자의 고용불안 증가
 - 실업크레딧지원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로 예산감소로 인해 구직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 증가

- 지역고용촉진금 등 지역 일자리 사업의 예산감소로 지역의 고용창출의 어려움 발생

<소득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변화>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71,372,000	70,255,000
고용창출장려금	48,277,000	26,003,000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269,000	2,051,000
실업크레딧지원(고보,일반)	67,568,000	63,692,000
지역고용촉진금	9,511,000	5,911,000
일자리대책지원및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4,053,000	3,360,000
계	198,997,000	171,272,000

자료: 열린재정, 기획재정부

○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직업훈련 관련 예산의 감소로 인적자원 개발 감소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등 직업훈련 예산의 감소는 실업자의 취업역량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 감소로 이어져 구직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는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하는 제도임

<직업훈련 일자리사업의 예산변화>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45,492,000	34,788,000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56,828,000	305,670,00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25,000,000	119,225,000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311,632,000	276,632,000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942,515,000	845,709,000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5,378,000	4,559,000
숙련기술장려사업	40,057,000	33,744,000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12,502,000	11,007,000
계	1,839,404,000	1,631,334,000

자료: 열린재정, 기획재정부

○ 운영지원비, 사회적기업 지원 등 기타 일자리사업의 예산감소로 고용 인프라 감소 우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2025년 운영지원비 예산은 전년대비 203억원 감소하여 기관운영,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인력개발 사업 등의 축소로 고용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 발생

- 사회적기업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삭감으로 신규 고용창출과 사회적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공정채용문화 확산은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능력중심의 공정채용문화가 민간부문에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삭감으로 공정채용문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

<기타 일자리사업의 예산변화>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52,718,000	45,406,000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317,873,000	307,605,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84,482,000	182,333,000
한국잡월드 운영지원	23,019,000	22,484,000
고용서비스모니터링	4,848,000	4,111,000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지원(정보화)	8,216,000	7,507,000
사회적기업 지원	32,990,000	28,412,000
사회적기업 육성(제주, 지특)	50,035,000	0
공정채용문화 확산	5,631,000	2,774,000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	43,984,000	0
계	723,796,000	600,632,000

자료: 열린재정, 기획재정부

3. 정책제언

○ 삭감된 일자리 예산의 추경편성

- 직업훈련, 소득지원 등 2025년 일자리 예산은 전년대비 6,345억원이 삭감되어 일자리 사업이 위축되고 고용 불안이 증가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는 추경 편성안에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여 고용 안정성을 회복하는 방안 마련
- 내년 1%대 저성장 전망과 게임·탄핵에 의한 성장률 충격으로 민생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침체되어 있는 시점에 추경의 편성이 필요하고,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여 고용 확대 필요
- 장애인 고용인프라 예산 331억원, 세대별 일자리 2,445억원, 소득지원 277억원, 직업훈련 2,081억원, 기타 일자리사업 1,231억원 등 일자리 예산 총 6,345억원 삭감됨

○ 장애인 고용인프라 예산 확대 방안 마련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장애인 취업지원 등 장애인 고용인프라 예산은 '24년 1,474억원에서 '25년 1,163억원으로 311억원(21.1%) 감소하여 예산확대 방안 마련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280억원), 장애인 고용정보화(9억원),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7억원), 장애인 취업지원(6억원),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6억원), 장애인 고용연구(3억원) 감소
-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인프라 예산을 감소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 취업역량을 감소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세대별 일자리 예산 확대

- '33년에는 20-29세 인구가 '23년에 비해 159만명 감소하고, 청년층의 인구감소로 기업의 인력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어 청년층 일자리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취업지원 예산 확대
 - 미취업 청년을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 확대
- '33년에는 40-49세 인구가 114만명 감소하고, 중장년층은 생산성이 높은 계층으로 이들 계층의 인구감소로 기업의 노동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며, 중장년층 일자리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 중장년의 생애경력설계,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중장년 내일센터 등 중장년층취업지원 예산 확대
 - '33년에 40-49세 인구 중 여자가 65만명 감소하여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예산의 확대 필요
- '33년에는 50-59세 인구가 62만명 감소하고 60-69세 인구는 80만명 증가하여 20-69세 전체 인구는 27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젊은 층의 인구감소에 대비 고령자 일자리 예산 확대
 - 도소매업, 농림업·어업, 제조업 등 저숙련 업종 중심으로 산업인력이 부족하여 고령자 고용확대 방안 마련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
 -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20-69세 인구변화>

단위: 천명, %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13	3,529	3,157	4,140	3,896	4,395	4,258	3,910	3,912	2,104	2,254	35,554
2023	3,463	3,085	3,634	3,240	4,082	3,911	4,316	4,281	3,687	3,846	37,543
2033	2,590	2,367	3,579	3,150	3,599	3,258	4,042	3,933	4,123	4,205	34,844
2033-2023	-873	-718	-55	-90	-483	-653	-274	-348	436	359	-2,699

자료: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고용창출장려금 등 소득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 확대

- 고용창출장려금, 고요유지지원금 등 소득지원 일자리 예산은 '24년 1,990억원에서 '25년 1,713억원으로 277억원(13.9%) 감소하여 예산확대 방안 마련
 - 고용창출장려금은 '24년 483억원에서 '25년 260억원으로 223억원(46.1%) 감소하여 예산확대 필요
 - 고용창출장려금은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하는 사업임

○ 직업훈련 관련 일자리 사업의 예산확대로 구직자 및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직업훈련 관련 일자리 예산은 '24년 1조 8,394억원에서 '25년 1조 1,631억원으로 2,081억원(11.3%) 감소하여 예산확대 방안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4년 9,425억원에서 '25년 8,457억원으로 968억원(10.2%) 감소하여 구직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약화 우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구직자에게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운영지원비, 사회적기업 지원 등 기타 일자리사업의 예산확대로 고용인프라 확대 및 고용촉진

- 운영지원비 등 기타 일자리 예산은 '24년 7,238억원에서 '25년 6,006억원으로 1,232억원 (17.0%) 감소하여 예산확대 방안 마련
- 운영지원비는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정보화사업, 인력개발 등 고용인프라 개선에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은 사회적가치 추구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지원

